

# 웹소설·웹툰과 사랑에 빠진 KT... 집단 창작에 100억 투자

스토리위즈, K-콘텐츠 육성  
지재권 확보해 신 수익 기대  
유통·투자·육성 등 시스템  
중국·일본 중심 해외 진출

KT가 콘텐츠 집단 창작 시스템에 100억원을 투입하며 웹툰·웹소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 지식재산권(IP)은 드라마, 영화 등으로 재생산되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황금알을 낳는 알'로 각광받고 있다.

전대진 스토리위즈 대표는 13일 열린 사업전략 설명회에서 "KT그룹이 갖춘 역량에 스토리위즈의 창의성을 더해 KT그룹의 기업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스토리위즈는 지난 2월 KT 웹소설 사업 분야를 분사해 설립한 웹소설·웹툰 기반의 콘텐츠 전문 기업이다. 모기업인 KT는 통신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 IP 확보부터 제작, 유



모델들이 스토리위즈의 웹소설 연재 플랫폼 '블라이스'를 소개하고 있다. /KT

통에 이르는 콘텐츠 밸류체인을 구축해 콘텐츠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이에 스토리위즈는 웹소설 작가 발굴을 통한 원천IP 확보부터 웹툰, 드라마, 영화 등 원 소스 멀티 유즈 콘텐츠 제작·유통까지 맡는다.

◆투자부터 유통까지 한번에...100억 투입해 할리우드식 창작 시스템 만든다

우선 스토리위즈는 원천IP 확보를 위해 할리우드식 집단 창작 시스템을 웹소설 분야에 도입한다. 창작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투자 및 유통 지원, 육성까지 이어지는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차로 100억원을 투입한다.

통상 웹소설은 작가 한 명이 기획부터 집필까지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개

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스토리위즈는 데이터 분석, 기획, 집필, 교정 등 웹소설 창작에 필요한 요소를 세분화한 집단 창작 시스템을 도입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IP를 기획·제작할 계획이다.

스토리위즈는 현재 운영 중인 웹소설 연재 플랫폼 '블라이스'의 작가 연재 기능을 강화해 유통·제작 역량과 시너지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초기부터 시행해 온 창작지원금 제도를 개편하고 특화 공모전,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창작 스튜디오와 연계해 1대 1 맞춤 코칭을 진행하는 등 신인 작가 육성에도 나선다. KT그룹 오리지널 영상 원천 IP 공급기지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국내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K웹소설 전성시대 만든다

스토리위즈는 이러한 웹소설·웹툰을 기반으로 국내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일본 시장은 출판만화와 라이

트노벨 등 기존 콘텐츠 사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스토리위즈는 일본 현지 인력을 직접 채용해 콘텐츠 유통과 제작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국내외 같이 창작 스튜디오를 설립하거나 전문 장르포털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장 개척에 나설 전략이다. 스토리위즈는 중국, 일본 외에도 미국, 프랑스, 태국, 인도네시아와도 글로벌 유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통 역량도 강화한다. 중소 에이전시와 스타트업 유통 대행과 함께 직계약 작가와 슈퍼 IP 계약을 늘려 유통 작품의 양과 질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대진 대표는 "웹소설·웹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서 KT그룹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리딩할 것인지, 콘텐츠 생태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KT그룹이 갖춘 역량에 스토리위즈의 창의성을 더해 기업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LG 윙', 슈퍼엠 MV서 썬스틸러로 등장

스위블 모드 활용... 시청자 눈길  
영상 조회수 1600만 이상 달해

LG윙이 아이돌 그룹 슈퍼엠 손에 쥐어졌다.

LG전자는 지난달 25일 공개된 슈퍼엠 정규 1집 타이틀곡 'One(Monster & Infinity)' 뮤직비디오에 LG 윙이 등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공개 후 현재까지 16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멤버 태용이 LG 윙의 스위블 모드를 활용해 지도를 확인하고, 후반에는 태민이 LG 윙을 통해 의문의 심벌을 제시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습을 담았다.

LG전자는 이번 슈퍼엠 뮤직비디오



슈퍼엠 뮤직비디오에 나온 LG윙. /LG전자

를 통해 LG 윙의 차별화된 폼팩터와 뛰어난 멀티태스킹 성능이 보다 많은 글로벌 소비자에게 알려지길 기대했다.

LG전자는 LG윙 출고가를 109만 8900원으로 저렴하게 출시하면서 대규모 프로모션 대신 언택트 마케팅에 집

중하고 있다. MZ세대를 겨냥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는 등이다.

LG윙을 온라인을 통해 처음 공개한 것뿐 아니라, LG 벨벳 등 신제품 출시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

## SKT, 클라우드 이상징후 AI로 감지한다

베스핀글로벌과 솔루션 선보여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클라우드 운영 전문기업 베스핀글로벌과 함께 AI 기반 '클라우드 이상 비용 탐지 솔루션'을 1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이상 비용 탐지 솔루션은 AI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사용량 및 비용을 분석해 이상 비용 발생 여부와 원인을 운영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기업은 매년 수억 원~수십억 원의 비용을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나, 그 비용의 적정성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클라우드 이상 비용 탐지 솔루션을 활용하면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정확한 비용 분석으로 불필요한 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양사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수년간 사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대상으로 검증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솔루션 활용 시 이상 비용 탐지 및 이상 발생 원인 판단에 있어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이번에 양사가 개발한 이상 비용 탐지 솔루션은 베스핀글로벌의 클라우드 통합관리 플랫폼 '옵스나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미국·중국·일본·한국 등의 300여 옵스나우 유료 고객사에 글로벌 서비스로 적용된다.

클라우드 이상 비용 탐지 솔루션은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마존 AWS, MS 애저, 구글 GCP 등 글로벌 클라우드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외 기업들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나인 기자

## 똑똑해진 '10세대 E-클래스'... 벤츠, 부분변경 출시

차세대 지능형 스티어링 휠 첫 적용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간판 베스트셀링 모델 E-클래스의 부분 변경 모델을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3일 E클래스를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E클래스는 1947년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1400만대가 판매된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표 모델로, 이번에 출시되는 더 뉴 E클래스는 2016년 출시된 10세대 E클래스의 부분 변경 모델이다.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더 뉴 E클래스는 완전 변경 수준의 디자인 변화를 적용했다.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 기능이 포함된 멀티빔 발광다이오드(LED) 헤드램프로 주야간에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이고, 아방가르드 라인업과 AMG 라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클래스. /

인 모델의 보닛에는 2개의 파워돔 디자인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더했다. 뒷부분은 트렁크 라인 안쪽까지 넓어진 신규 디자인의 분할형 테일램프가 적용됐다. 실내는 첨단 기술과 디지털화, 고급 소재로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브랜드 최초로 적용된 차세대 지능형 스티어링 휠에는 정전식 핸드 오프 감지 기능을 갖춰 운전자의 물리적인 움

직임 없이도 차량 내 각종 보조 시스템에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제어하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했다. 더 뉴 E클래스는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성능 메르세데스-AMG 모델을 비롯한 총 6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선보이며 전 모델에 자동 9단 변속기가 기본으로 탑재된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6450만~1억194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LGU+ "2년동안 내 맘대로 폰 두 번 교체"

파손, 제조사 상관없이 교체 가능

휴대폰을 바꿀 수 있다. 그간 휴대폰 렌탈이나 동일한 제조사에서 만든 신형 폰으로 교체할 때 중고가격을 보상하는 부가서비스는 있었지만 원하는 스마트폰을 직접 고를 수는 없었다. 맘대로 폰 교체 이용자는 기존에 쓰던 단말기와 같은 모델이나 출고가가 비슷한 가격의 모델로 교체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휴대폰케어 전문기업 볼트테크코리아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교체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맘대로 폰교체'를 오는 16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맘대로 폰교체는 U+모바일 이용자가 원하면 2년간 최대 2회 교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단말 파손 여부나 제조사·운영체제(OS)에 상관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바꿀 수도 있다. AI기반 원격진단을 통해 개통 1년 내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맘대로 폰교체를 이용하면, 휴대폰이 파손됐더라도 2개월동안 두 번까지

고객이 처음 개통한 단말기의 출고가에 따라 2490원~6490원의 월 이용료를 내고, 서비스가입시점 출고가의 12%(최소 5만원)를 교체수수료로 지불하면 원하는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다. 교체 신청은 맘대로 폰교체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교체할 휴대폰과 교체수수료(가입 휴대폰 출고가의 12%)만 결제하면 바로 배송된다. /김나인 기자